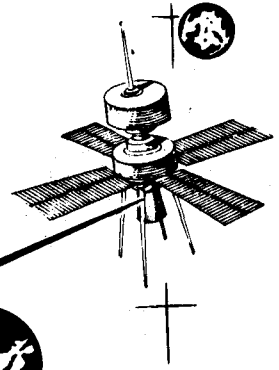


양
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일본에 닭을, 중국에 계란을 수출하자

국제화시대 선진국 진입의 여로는 험난하기만 하다. 정부는 금년부터 오는 91년까지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예시품목을 발표해 점차 국내 농수축산물 시장을 개방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간동안 축산물 24개 품목, 사료 10개 품목, 곡류 및 콩류 25개 품목, 과실 19개 품목 가공식품 64개 품목, 수산물 95개 품목, 주류 22개 품목, 기타 9개 품목 등 268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에 85개, 90년에 91개, 91년에 92개 품목이 수입자유화될 예정이다.

이로서 오는 1991년까지는 오리고기, 소·돼지고기 내장·설육, 사슴고기 등 24개 축산물과 밀·옥수수·대두·유채 등 25개 곡류, 알팔파·어류용 배합사료·들깨박·대두박·배합사료 일부 등 10개 사료 품목이 개방되어 수입자유화시대를 맞이해 국내 축

산업이 새로운 마스터플랜에 의한 구조조정 작업을 전업계가 합심해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다행이 이번 작업에서 닭고기 등 양계산물이 뒤로 미루어진 것은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양계업계도 비오는 날을 위하여 우산을 고치는 심정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할때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으로는 생산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생산자 조직의 강화, 밖으로는 국제적인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일을 위해서는 민·관 전업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다.

최근 양계업계의 도입곡류·사료·축산물기자재 등의 불합리한 수입제도, 관세제도, 세제 등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국내 산업의 손발을 묶은 채로 링에 올라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정정당당히 싸울 수 있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양계업계에 양계산물에 대한 국제가격비교, 경쟁국 생산·유통정보, 생산비 등 상세한 연구조사

지난 겨울은 따뜻했다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외곽적인 정보를 원용하고 있는 유치한 단계이다. 진정 우리산업을 보호하고 키워나가기 위하여 보다 치밀하게 조사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협회내에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 봄직도 하다.

최근의 우리나라 양계산물 시세가 닭고기·계란 공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뜻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의 경제중심지로 아세아·태평양시대 개막을 예견하고, 우수한 양계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13억 인구의 중국이 지리적·문화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양계산업의 구조적 조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난가전망이나 브로일러 입추시기를 매년 모여서 얘기하는 모임도 꼭 필요하겠으나 닭고기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일본에 수출하는 대책모임도, 중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 오늘 생산된 신선한 계란 1개씩을 수출하는 대책모임도 양계산업 앞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모임일 것이다.

최근 인기리에 닭고기소비가 급증하는 중국의 시장을 태국, 미국, 일본상사 등이 군침을 흘리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미국의 한 여행자는 밝히고 있다. 우리가 강건너 볼보듯이 보고만 있기에는 양계인 모두가 국가백년대계 발전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다음 세대 비전이 없는 산업은 사양화산업이다. 제2세대에 양계업 계승을 원하는 농가가 줄고 업계의 양계전문인력도 구하기 어렵게 됐다.

계우회·협회에 모여서 3~4시간씩 계란값·육계값 등 오늘의 문제만 해결을 위해 양계업계는 지난 30년간 시간을 허비하였다.

5~10년 후 양계업 마스터플랜을 세울 모임체가 필요하다. 신선한 닭고기·계란의 일본 중국시장 수출은 물론 국내 양계산업이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새로운 구성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따뜻한 겨울을 보냈기에 올여름 인체·가축 등에 많은 질병이 만연할 것이라는 질병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벌써부터 방역당국의 소독에 대한 주의환기가 심심치않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예년에 앞서서 아이들 예방주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가축에 있어 타축종 보다도 근본적으로 질병이 많은 양계장 방역관리에 더한층 관심을 기울여 계속되는 고난가시대에 효율적인 생산관리에 임해야 할것이다.

특히 닭은 날짐승의 특성상 소·돼지 등 다른 축종에 비하여 생리적으로, 집단관리상 많은 질병이 끊이지않고 발병하고 있으며 사양관리중 방역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이게 된다.

환기·온도·습도 등 환경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추백리 등 난계대성 질병이 있고, 소·돼지 등 한배 새끼가 적어 질병컨트롤이 용이한 반면에 닭은 많은 번식성과 계군관리에 의한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이 서로 상이해 방역관리상 어려움이 많다.

또 많은 대사에너지가 필요로해 산소요구량이 많아야 하며 (생체 kg당 시간당 산소요구량-닭 739ml, 돼지 392ml, 소 328ml) 활동성이 많아 주변에 병원체를 마구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리적 특성상 깃털 웨브리셔낭등이 존재하고, 땀샘, 기낭, 임파절, 횡격막(복강, 흉강이 분리되지 않아 질병발생시 전체로 확산)이 없고 소화기·비뇨기계가 포유동물과 달라 요산침착 등이 잘 걸린다.

땀샘이 없어 온도변화적응에 어렵고 특히 습기에는 상극으로 계사내의 젖은 계분은 가능한한 빨리 계사에서 빼어내야만 한다.

계다가 생존을 제공 산란을 난중 사료효율 복지방 등 닭의 경제형질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요소가 2~3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연속입주시 반드시 휴식기간을 가질것과 올인-올아웃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다.

질병이 걸린 후 항생제 등 치료제 투약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소독의 철저, 백신의 적기 접종 등 조심스러운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5년 이상 사용한 지하수의 경우 대체로 오염도가 높아(지하수는 대부분 표층수) 반드시 소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농장소독 구충구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모처럼 고난가시대에 질병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 보기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 철저한 예방관리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물약품 취급은 수의사가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의 취급과 관리가 약사만의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는 수의사에게도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약사법에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4항)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에 관해서는 농수산부 소관(부칙 제2조)으로 별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반해 실제로 동물용 의약품의 취급

과 관리에 관계되는 관련조항에서는 사람의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 관리토록 규정돼 있어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 많은 개업수의사가 약사면허 소지자 도움없이 개업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있다. 이는 불필요한 추가비용으로 양축가에게 돌아갈 이익이 약사에게 돌아가는 아이러니가 된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키 위해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회장 전동용 양돈협회장)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사료협회, 수의사회 등 7개 단체명의로 국회 보사위에 축산업계를 대표해서 단체들의 견해를 밝힌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물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약사가 전담 취급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 남용에 따른 약화사고 조장이 우려되며 결국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만 가중되게 되며, 외국도 가축의 백신, 항생제, 홀몬제(성장촉진제)등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이나 감시감독하에 사용하여 가축뿐만아니라 사람건강 피해도 예방토록 되어 있다.

또한 가축은 경제적인 면에서 치료보다는 예방방역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적 동물로 집단방역관리가 효율적으로 반드시 일선 수의사 질병상담으로 행해지는 만큼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진단행위와는 다르다.

식품 특히 축산식품의 항균성물질등 유해물질의 잔류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만큼 양축농가 지도 교육 등은 전문 수의사가 담당해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는 약사뿐만 아니라 수의사가 전담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유통은 수의사가 취급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양재**